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무디스社, 일본 생보산업 '안정적'으로 상향 전망

□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(Moodys)는 최근 일본 생명보험산업 전망을 2년 만에 '부정적'에서 '안정적'으로 상향 조정함.

- 무디스는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내년도 사업 전망을 약 2년 만에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수정함.
- 일본과 함께 보험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성장 잠재력이 다소 훼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전망 등급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유지함.

□ 이번 무디스의 전망 상향은 위험자산 비중 축소와 같은 업계의 체질 노력 진전,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자산운용환경 개선, 의료보험 및 사망보험 시장의 성장세 지속 등이 주요 이유임.

- 생명보험회사들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실적이 급감했으나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 축소와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한 자산운용환경 호전 등 전반적으로 업계의 체질 개선이 양호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이 상향 조정의 주요 이유임.
- 실제로 T&D 파이낸셜생명과 미츠이생명(三井生命保險)은 금융위기 이후 가격 변동 위험이 큰 국내 주식 비중을 4%대 까지 축소했으며, 다이이치생명(第一生命保險)과 후코쿠생명(富国生命保險) 역시 보유 주식을 약 2% 줄이는 등 업계 전체가 주가 하락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임.
- 또한 생명보험의 주력상품인 사망보험 시장은 인구 고령화로 축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 시장이 조만간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될 만큼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이번 전망 수정에 크게 고려됨.

(FujiSankei Business I, 2/10)